

나의 안에 거하라

성경 요한복음 15:1-9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나의 안에 거하라 (은혜의 찬양 376장)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2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 89장)

- 1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 나게 하소서
- 2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3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 4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후렴]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말씀 읽기 요한복음 15:1-9

-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본문 배경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가지를 주관하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바로 성도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2절).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4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지 된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7절).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 관찰

1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4절)

답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해설 예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1절).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2절). 우리는 인터넷에 접속하면 수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지만 친구 관계를 맺고 온라인 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접속을 넘은 긴밀한 접촉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가지는 얼마 못 되어 떨어져서 말라 버립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2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가지인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5절)

답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5절). 첫째,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4절). 둘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5절). 셋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6절). 우리가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실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대표되는 행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갈 5:22, 23).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내려면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 적용

1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작은 틈이라도 생긴다면 가지는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나요? 최근에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예수님과 떨어지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절대무능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6-4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작곡 유라혜

나 는 포 도 나 무 요 너 희 는 가 지 라 그
 가 내 안 에 내 가 그 안 에 거 하 면 열 매 를 많 이 맺 나 니 나
 를 떠 나 서 는 너 희 가 아 무 것 도 할
 수 없 음 이 라 요 한 복 음 십 오 장 오 절 아 멘



가정에배 기도문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 죄를 지어 하나님께 분리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접붙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소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